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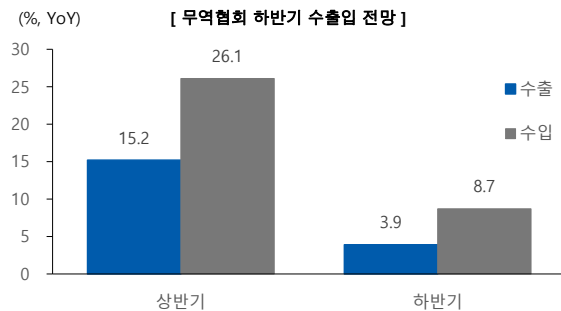


냉정히 바라본 한국 수출 경기, 대외 우려 요인

1. 수출 경기에 대한 우려

- 6/20일까지 한국 수출은 전년비 -3.4% 감소. 조업 일수를 고려해야하겠지만, 20일까지의 수출이 전년대비 기준으로 감소한 것은 20개월만에 처음.
- 무역수지는 7.6천억\$ 적자, 전월 (4.8천억\$)에 이어 적자 지속.
- 무역협회는 하반기 수출이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 글로벌 성장 둔화, 전쟁 장기화로 인한 공급망 훼손으로 글로벌 교역규모 둔화가 국내 수출 둔화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무역협회는 하반기 한국의 수출 경기가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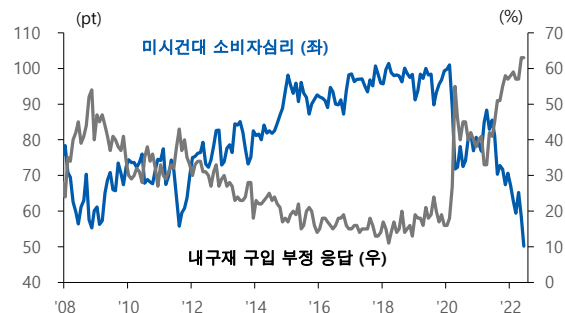


자료: 무역협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 불투명한 대외 수요 여건

- 내구재 등 소비재의 구매 심리를 반영하는 미국과 유럽의 소비자심리는 과거 위기 수준 이상으로 하락된 상태.
- 세부적인 내용면에서도 실질 소득 감소와 내구재 구매에 대해 부정적.
- 실질 소득 감소는 가계 소비의 감소뿐만 아니라 기업의 공급 활동까지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연결.
- 기업의 공급 활동 감소는 결국 생산에 필요한 중간재와 자본재 수요 감소로 연결되고, 한국의 수출에 있어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

고물가를 통제하기 위한 강한 긴축이 예상되며, 미국 소비자의 심리는 크게 악화, 내구재 소비 의향도 부정적.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1. 수출 경기에 대한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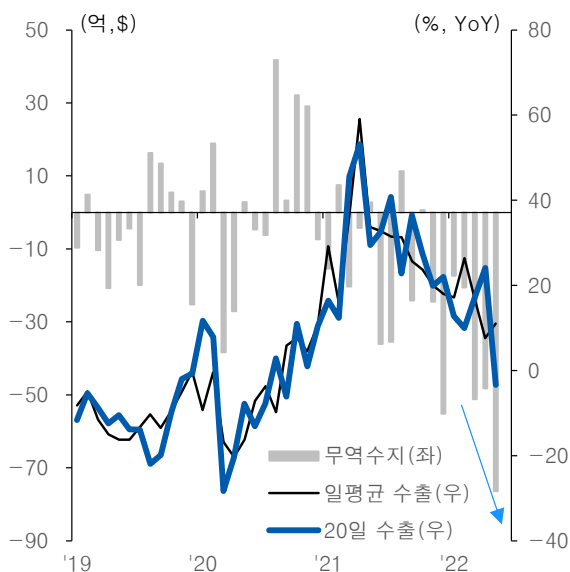
6월 20일까지 한국의 수출은 전년대비 -3.4% 감소했다. 조업 일수를 고려해야하겠지만, 20일까지의 수출이 전년대비 기준으로 감소한 것은 20개월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한편 무역수지 역시 여전히 큰 적자폭을 지속하고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주요 시장으로의 수출 부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봉쇄조치가 해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향 수출은 전년대비 -6.8% 감소하였으며, 미국(-2.1%), EU(-5.3%) 수출도 감소하였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반도체(1.9%)를 제외한 한국의 주력 수출 제품 전반이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승용차(-23.5%), 무선통신기기(-23.5%) 등은 큰 폭의 수출 둔화가 발생했으며, 철강제품(-6.1%)과 정밀기기(-16.2%) 등 중간재와 자본재 수출도 둔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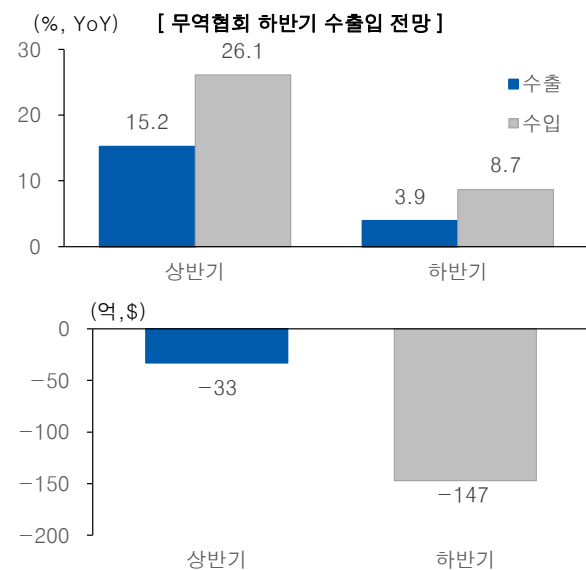
월말로 갈수록 반전될 여지는 존재하지만, 근본적인 대외 수요 환경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내구재 중심으로 확산되어 왔던 이연 수요가 사실상 종료되었으며, 공급망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 금리 인상으로 인한 투자 위축 등 대외 수요 환경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차트1] 한국의 20일 기준 수출입과 일평균 무역수지 추이.
조업일수 감소로 수출액 증감률은 둔화.



자료: 관세청,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2] 무역협회는 하반기 수출 경기가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 무역수지 역시 적자폭이 확대될 것으로 제시.



자료: 무역협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 불투명한 대외 수요 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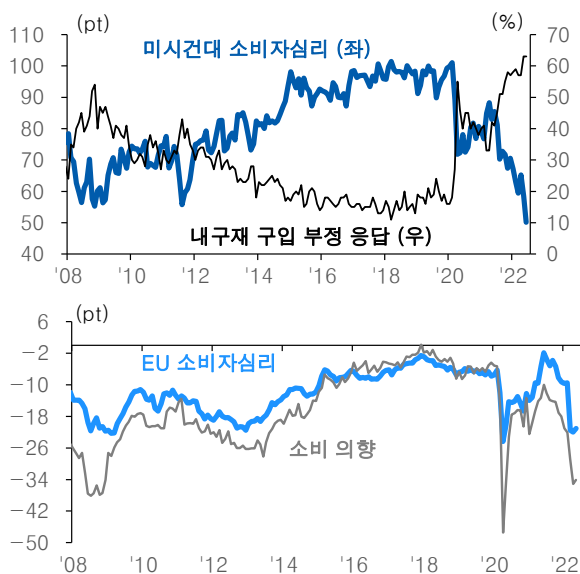
대외 수요의 변수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내구재 등 소비재의 구매 심리를 반영하는 미국과 유럽의 소비자심리는 과거 위기 수준 이상으로 하락된 상태이다. 세부적인 내용면에서도 실질 소득 감소와 내구재 구매 의견이 유보되는 모습이 관측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년 후 실질 소득 감소를 예상하는 부정적인 의견은 인플레이션이 본격화된 지난해 하반기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자동차 가전 등 가정용 대형 내구재를 소비하기에 적절치 않다는 의견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보다 높은 수준에 있다.

실질 소득 감소는 가계 소비의 감소뿐만 아니라 기업의 공급 활동까지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연결될 수 있다. 또한 기업의 공급 활동 감소는 결국 생산에 필요한 중간재와 자본재 수요 감소로 연결되고, 한국의 수출에 있어 부정적 요인으로 생각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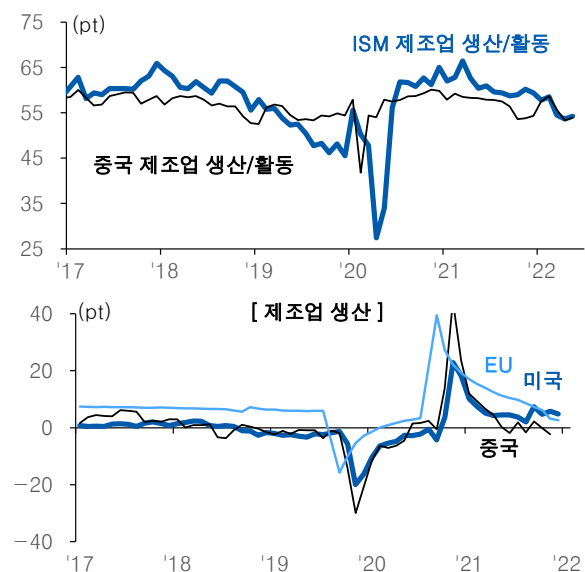
미국, 중국, 유로존의 제조업 생산 활동은 지난해 말부터 빠르게 둔화된 상황이다. 물량 측면의 산업생산 역시 지난 5월에 둔화된 모습이다. 대외 수요를 기대할 수 있는 여건이 불투명하고, 반전 모멘텀을 찾기 어려운 환경에서 향후 한국의 수출 모멘텀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차트3] 미국, 유럽 소비자들의 심리는 부정적인 상황. 소비 지출 의향 역시 크게 악화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4] 미국, 중국, EU 등 한국의 주요 교역 대상 국가의 생산활동과 물량 측면의 생산은 크게 둔화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